

동국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오프너 [OPEN HERE]

우리의 삶 가장 가까이 있는 학내에서,
학과에서, 그리고 관계에서
여태껏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것들로 인해
상처 받고 소외 당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말하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
목소리 내는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합니다.
'말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솔직하지만 불편한 이야기들,
그리고 넓은 고민을 교지에 담겠습니다.

NOVEMBER 2015 COMING SOON